

전남도-시·군 추진 200억원 이상 사업 9건중 5건 '제동'

순천 뿌리기술센터
 광양 동서통합순례길
 곡성 고압직류시험센터
 :
 행자부 중앙투자 심사
 재정 조달 등 엄격 적용
 무더기 재검토 판정

전남도와 각 시·군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무더기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사업성, 타당성, 추가 재정 부담 여부 등이 과거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검토의 경우 재원조달 방안, 사업 규모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립이 필요해 사업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사업비 200억원 이상(시·군 1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사업(사업비 202억원)', '광양을 동서통합순례길 조성사업(300억원)', '곡성군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센터 건립사업(380억원)', '영광군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사업(367억원)' 등 심사 대상 9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건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행자부는 ▲구체적인 사업 협약 체결 미흡 ▲객관적인 수요 산정 후 규모 산정 ▲자치단체 재원부담 대가로 자료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들었다. 159억원짜리 '영광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

성사업'은 사업계획 검토,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재심사를 받게 됐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북측연결도로 개설공사(279억원), 여수 이순신도서관 설립(199억원), 고흥 가족농노 엑비화시설(148억원), 진도 군단위 LPG배관망사업(200억원) 등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민원 최소화, 적자 방지대책 강구 등의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곡성군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센터 건립 등의 사업은 지난 3월 2016년 1차 심사에서 조건부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1차 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여수 이순신도서관 건립사업은 이번 2차 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난이 반복되면서 행사성 경비는 물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빛어질 일'이라며 "향후 재정투자심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우선시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또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사업비 200억원 미만(시·군 100억원 미만) 전남도 및 시·군 사업 27건에 대한 심사를 벌여 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립(60억원), 완도실내체육관 건립(62억원) 등 9건에 대해서 적정 판정을 내렸다. 신안 증도기독교재향관 건립(95억원)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수익창출 모델 방안 강구 등을 조건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재검토는 신안갯벌도립공원 생태탐방로 조성(98억원), 신안 우럭치어증강육성장 조성(40억원) 등 단 2건에 불과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3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2016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만나 서로 악수를 하며 덕담을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환한 웃음과 악수 나누는 김종인·손학규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나란히 참석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3일 광주에서 열린 '2016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개막식에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을 놓고 일각에서는 '숙제'로 남은 호남민심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새판짜기'를 언급하며 정

계복귀를 시사한 손 전 대표의 광주행도 사실상 정계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와 손 전 대표의 이 행사 추진위원장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초청으로 참석했으며,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두 사람의 조우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졌지만, 환하게 웃으며 서로

악수를 나누며 의례적인 인사말만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대표 측은 이날 정계복귀 여부 관련 질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전남) 강진에 조용히 계신다"며 "아직 정계복귀에 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손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 여부에

관련 정치권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 특히 손 전 대표는 강진 집거 중 쓴 글을 모아 책을 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필 중인 책에는 2012년 대선 후 독일에 머물며 느낀 점과 남북관계, 동북아 외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책 발간 시점이 사실상 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공항 여파... 박대통령 영남 지지율 급락

대구·경북 8.3%p 빠져...부정평가 60%대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영남권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발표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6월 4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 6월 3주차보다 2.3%p 내린 35.1%(매우 잘함 9.5%, 잘하는 편 25.6%)로 하락했다. 또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0%p 오른 60.0%(매우 잘못함 38.1%, 잘못하는 편 21.9%)로 다시 60%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를 하락은 영남권 민심이 돌아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경북에

서 8.3%p, 부산·경남·울산에서 5.1%p 각각 빠졌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반기론 23.7%(1.3%p 상승), 문재인 23.0%(1.1%p 상승), 안철수 11.3%(1.0%p 하락), 박원순 5.9%(0.1%p 상승)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6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스마트폰엔(SPA) 및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70%)와 유선전화(30%) 병행 임의결기(RDD)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3.1%p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규모가 연간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돼 농축수산물 피해와 함께 소상공인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광대훈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김영란법' 실행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이 2061만원에서 2030

새누리 "소상공인 피해도 연간 2조 6000억원" '김영란법 논란' 다시 수면위로

만원으로 31만원 줄어든, 하루 평균 고객 수도 김영란법 시행 전 30.4명에서 시행 후 29.9명으로 0.5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연간 피해액으로 합산하면 2조6000억원에 달한다.

광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또 63.9%가 음식·선물 허용가액으로 7만700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제과·꽃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를 근거로 중소기업청은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에 음식물·선물 허용가액 3~5만원을 8만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 의원은 "부정한 공무원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가뜰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지금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건전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가격 공개!"

8년전 가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대명입니다
 정직한 가격입니다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음식비	밥	60인분	60,000	고사리나물	3k	45,000	동대+애호박전	4k	96,000	
	육계장	60인분	114,000	표고버섯나물	3k	54,000	초고추장(직접만들)	1병	15,000	
	쇠고기무국	60인분	114,000	파고추말치조림	3k	78,000	양념새우젓(국산)	1k	15,000	
	북어무채국	60인분	108,000	명태코다리조림	4k	88,000	인절미	6k(3되)	54,000	
	된장국(국산검은콩)	60인분	96,000	오이도라지무침	4k	84,000	기피인절미	6k(3되)	57,000	
	배추김치(국산)	5k	57,500	홍어회무침	4k	104,000	골떡/절편	6k(3되)	45,000	
	도라지나물	3k	45,000	홍어사시미	4k	120,000				
	새송이나물	3k	54,000	돼지삼겹(수입)깃가	5k	105,000				
	취나물(계절)	3k	54,000	돼지생삼겹(국내)깃가	5k	190,000				
	장례용품비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0,6오동관	1개	200,000	적출물및음식물처리비용	2회	100,000	항/원장(세트)	1개	5,000
		수의(화장)	1벌	200,000	수세복	1벌	30,000	맷배	1회	150,000
초립비		1회	100,000	액자리본(고급)	1개	5,000	입관용품	세트	150,000	
안치실		1회	100,000	항위패	1개	20,000	양초(대)	1개	10,000	
염습비		1회	300,000	방인세트	세트	80,000	여상복	1벌	18,000	
염실임대료	상조	250,000	부위록	1권	15,000	넥타이	1개	3,000		

주류·음료 소주 1,500 / 맥주 1,600 / 콜라, 사이다 700

맛과 품질과 중량을 반드시 비교해 주십시오

- 전 빈소 전자저울 비치로 음식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 판매 즉시 전산전표 발행으로 실시간 장례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린장례식장
 www.greenfuneral.co.kr
 Tel. 062)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 (문흥동 876-17)

그린은,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고귀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린에서 상을 치루시면, 전국 어디서나 문상객이 찾아오기 편리하며, 쾌적한 접객실, 맛있는 음식, 품격있는 행사와 의전으로 고인에 대한 예와 품격을 높이고, **장례비용은 대폭 절감하여 상주님께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

